

2001년 2/4분기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

조 사 연 구 실

2001년 2/4분기 정보통신부문 인력은 총 1,147,643명으로 2001년 1/4분기 대비 0.8%(9,373명) 감소하였다.
 ([표 1-1] 참조)

[표 1-1] 정보통신부문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0. 4/4	2001. 1/4		2001. 2/4	
			증감율		증감율
정보통신산업 인력	435,668	435,980	312(0.1)	428,667	-7,313(-1.7)
정보통신서비스	93,002	92,897	-125(-0.1)	90,811	-2,086(-2.2)
정보통신기기	281,090	280,319	-771(-0.3)	275,179	-5,140(-1.8)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61,556	62,764	1,208(2.0)	62,677	-87(-0.1)
정보통신 관련산업	171,175	172,933	1,758(1.0)	172,364	-569(-0.3)
정보통신공사업	63,948	65,170	1,222(1.9)	64,756	-414(-0.6)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107,227	107,763	536(0.5)	107,608	-155(-0.1)
타산업 정보화 인력	546,435	548,103	1,668(0.3)	546,612	-1,491(-0.3)
합 계	1,153,278	1,157,016	3,738(0.3)	1,147,643	-9,373(-0.8)

2001년 2/4분기 고용의 특징은 전 산업 부문에서 인력이동이 심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인력규모가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 인력은 2001년 1/4분기대비 1.7% 감소한 428,667명으로 2000년 3/4분기의 인력규모(429,786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정보통신관련산업은 2001년 1/4분기 대비 0.6% 감소, 타산업 정보화 인력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4/4분기에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이후, 2001년 2/4분기에 들어서도 전통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세계적인 IT수요의 둔화로 인하여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IT산업이 다소 위축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유통업의 성장률 정체와 더불어 타산업 분야도 기업체의 사업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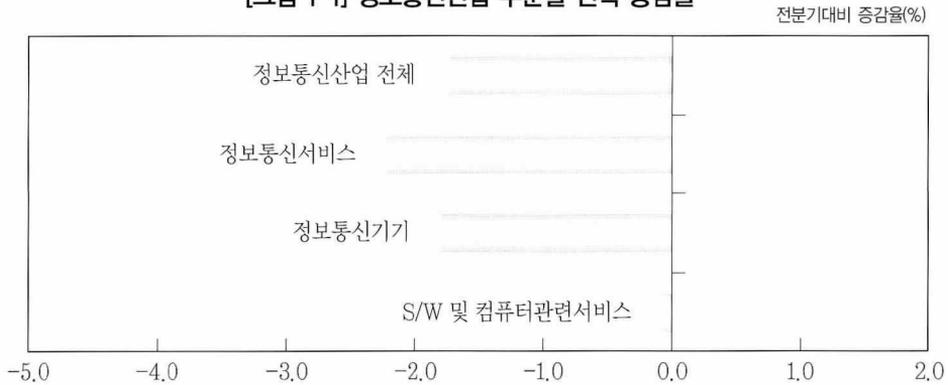
♣ 정보통신산업

2001년 2/4분기 정보통신산업 인력은 2001년 1/4분기대비 1.7%(7,313명)감소한 428,667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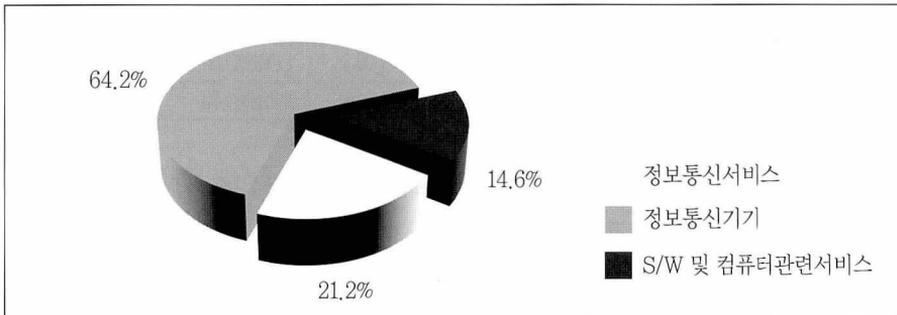
부문별로 전분기 대비 인력 증감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부문이 각각 2.2%(2,086명), 1.8%(5,140명), 0.1%(7,31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인력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가 90,811명으로 전체 정보통신산업 인력에 대한 비중이 21.2%이며, 정보통신기기가 275,179명으로 64.2%,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62,677명으로 14.6%의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1-1]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인력 증감율



[그림 1-2]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인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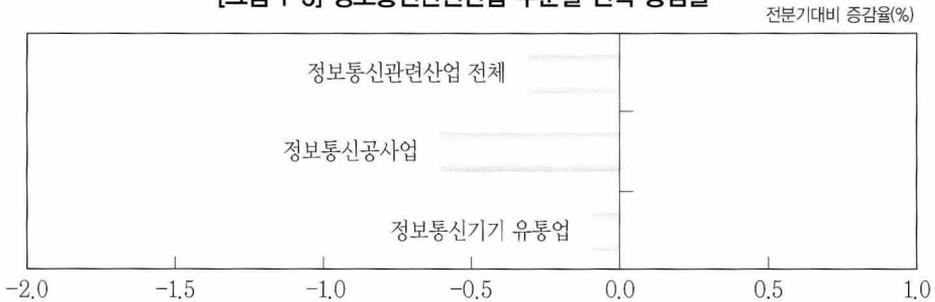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정보통신산업 인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인력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정보통신기기 부문에서는 계속되는 PC 시장의 불황과 반도체 시장의 경기 침체가 인력감소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지난해부터 솔루션제공 및 무선인터넷 등의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했던 인력을 충분히 포용하여 2001년 2/4분기 인력 증감율은 미비한 감소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관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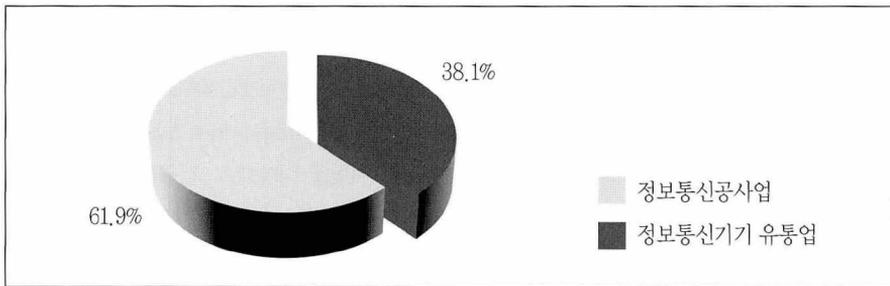
정보통신관련산업의 2001년 2/4분기 인력은 전분기대비 0.3%(569명) 감소한 172,364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이 0.6%(414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부문이 0.1%(15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3] 참조)

분야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이 64,756명으로 정보통신관련분야의 38.1%를 차지하였고,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인력이 107,608명으로 61.9% 비중을 나타냈다. ([그림 1-4] 참조)

[그림 1-3] 정보통신관련산업 부문별 인력 증감율



[그림 1-4] 정보통신관련산업 부문별 인력 분포



♣ 타산업 정보화 인력

2001년 2/4분기 타산업 정보화 인력은 전분기대비 0.3%(1,491명)감소한 546,612명으로, 2001년 2/4분기 전 산업 상시종사자 11,209천명¹⁾ 중 4.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분기 고용동향 조사의 시사점

2001년 2/4분기에 들어서 정보통신부문의 인력은 다소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1) 통계청 2001년 6월 고용동향

의 추가부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과 출자전환, 구조조정지연 등으로 신규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4분기 고용동향의 특징은 증가추세를 보이던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인력규모가 전분기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인력이 감소한 구체적 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의 구조조정과 정보통신기기 부문에서 PC시장 및 반도체시장의 불황이 인력감소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정보통신관련산업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도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부문 수요감소로 고용인력이 감소되었고, 타산업에 있어서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고용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타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경영악화 등으로 이직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1년 하반기 이후 정보화 인력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주도했던 국내외 IT산업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최근 미국에 대한 테러발생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고, 정보통신 수요의 감소, IT산업 관련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그 증가율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원사소식

■ BS7799 인증 획득

NDS는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인 BS 7799 (British Standard 7799)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NDS가 국제 인증 네트워크(IQNet) 멤버인 독일 DQS 및 한국품질재단(KFQ)의 공동심사를 통해 획득한 BS7799 인증은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의 표준으로 보안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인증이다. 이는 보안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조직이 고객 정보의 비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산업계는 이러한 BS7799 인증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고 인식, 기업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의 향상과 품질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BS7799를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증으로 채택코자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NDS는 이번 BS7799 인증을 계기로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보안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자체 정보보호 기술력 향상 및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NDS 정보보호 사업의 주력 분야인 GSS(Global Security Service)의 컨설팅 분야에 BS7799 인증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SI 업체 중 최초로 BS7799 인증을 획득한 NDS는 솔루션 판매에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관제 서비스, 컨설팅에 인증 서비스까지 ONE-STOP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